



11 월 소식 입니다.

살롬!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 식구들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각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맛있게 구어낼 터키 구이의 냄새를 마음으로 미리 음미해 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는 감사절 되시길 다시 한 번 축복 드리며 11 월 소식 좀 일찍 드립니다.

## I. 탕가 신학교

탕가신학교 제 18 회 졸업식이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6 명의 3 년제 졸업과 2 명의 2 년제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설교는 다르살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 II. 리빙 스톤 학교 소식

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입니다. 아래의 스케줄을 참고 하셔서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4 학년들 국가고시가 지난주에 시작되어 이번주 15 일에 끝나고 16 일에 정든 학교를 떠납니다.
- 2) 2 학년들도 어제 (11 월 12 일)부터 국가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으며
- 3)고등학교 6 학년(F6)들도 화요일인 13 일부터 22 일까지 약 8 일간 2 개주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력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결과는 내년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 4) 2019 년도 1 학년 신입생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구요.
- 5) 19 일부터는 내년도 신입생이 될 1 학년 학생들이 Pre form One 코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 6) 23 일부터 학기말 고사를 치르고 12 월 5 일 종강과 함께 모든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집으로 가게 됩니다.

### ○ 최선교사님 가정 소식.

11 월 11 일을 끝으로 최명철 김주흥 선교사님 내외분이 이곳 사역을 마치고 12 일 아침 사역지를 떠나셨습니다. 탄자니아 다른 지역에서 머물다 26 일경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회에서 협력선교사로 파송장을 발급해 주셔서 잘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곳을 떠나셨으니 저희 선교회에서 다른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박선교사 내외 고국방문

12 월 6 일부터 25 일까지 고국을 방문합니다. 방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김은래 선교사의 건강검진(12 월 10 일),
- 2)연로하신(병환중) 어머니님 방문,
- 3)내년 리빙스톤 고등학교 6 학년 졸업생들의 한국 대학 진학 (KAIST 등등) 관계의 일,
- 4) 2019 년 리빙 스톤 학생들 한국견학 방문 일정 때문이지요.

### ○ 탄자니아 외국인들을 향한 노동법 개정소식

새롭게 개정되고 발효된 노동법은 모든 외국인 단체(선교단체, NGO, Business 기업 등등) 및 비시민권자에 해당됩니다.

2015년에 그 효력이 발효된 개정 노동법은 비시민권자들에게 총 5년의 노동허가를 내어주고 그 후로는 모두 탄자니아를 떠나도록 하는 법령이지요. 따라서 그 기간 안에 현지인들에게 이양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법령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서양 선교사들 중에는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떠난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앞 일을 계획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 그분의 호흡에 맞추어 움직이는 저희가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호흡에 거슬러 가지 않는 탄자니아가 되도록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이 발표된 법령문은 홍계호 이사장님께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동부아프리카 교회들에게 닥친 핍박

지난해 부터 동부아프리카에 속한 3개 나라(탄자니아,우간다,르완다)에 기독교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핍박(현지 신문과 방송 그리고 많은 현지 교계 지도자들이 하는 말로 미루어)이 시작 되었습니다.

내용(이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신학을 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강단에 설수 없다", "교회 건축시설이 미비한 곳은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로 인하여 올 한해 동안 우간다의 약 6천개의 교회와 르완다의 약 3,6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탄자니아는 정규 신학교(탄자니아에는 정부에 등록된 개신교 신학교가 단 한곳도 없음)는 아니어도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신학 certificate 소유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년부터 탕가 신학교 입학생들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동법 개정과 종교 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다음의 2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이 땅에도 외국인들에 의한 복음전파 한계의 때가 오지 않았을까?

둘째,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방법을 현지인들에 의한 전파 방법으로 바꾸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방법이든 주님의 나라가 흥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신학교 졸업식과 졸업생들의 목회지를 위하여
2. 국가 시험을 치르는 리빙스톤 학생들과 학기말 준비를 위하여.
3. 이곳을 떠나신 최 선교사님 내외분의 앞길을 위하여.
4. 동부아프리카에 시작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제도화되어가는 기독교 핍박을 위하여.
5. 고 선교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모두께 Happy Thanksgiving 을 전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김은래, 박윤석 선교사 드림

